

보도자료

제 목	백남준아트센터 2018년 연간 전시 일정, 1월 프로그램 및 행사 안내		
문 의	* 취재 문의: 강연섭 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 료	웹하드 ghard.ggcf.or.kr * ID: njpac * PW: 1234 * 경로: [보도자료]→[2018]		
배 포	2018. 1. 18 배포	쪽 수	총 5매

“백남준아트센터 2018년 연간 전시 일정, 1월 프로그램 및 행사 안내”

‘2018년 10월 8일,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맞이해,
 백남준전 《30분 이상》, 기획전 《웅얼거리고 일렁거리는》, 《세 개의 방》, 《다툼소리야》,
 개관 10주년 특별전 《미래 미술관X미래 미디어》(가제) 등의 다양한 전시 개최 예정’

‘1월 29일 백남준 추모 12주기 맞이하여 온라인 이벤트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 개최 예정’

‘백남준아트센터-FACT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결과전시 《루메(자동)》전,
 교육 프로젝트,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프로그램 <피드백> 등
 백남준아트센터 1월 프로그램 풍성’

I. 2018 연간 전시 일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백남준전 《30분 이상》						《미래 미술관X미래 미디어》 (가제)					
기획전 《웅얼거리고 일렁거리는》			기획전 《세 개의 방》 기획전 《다툼소리야》			《미래 미술관X미래 미디어》 (가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2018년 2월 중 새롭게 단장하는 백남준전 《30분 이상》을 시작으로 3월 기획전 《응얼거리고 일렁거리는》, 7월 《세 개의 방》과 《다툼소리아》(가제), 10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특별전 《미래 미술관X미래 미디어》(가제) 등을 개최한다.

백남준전 《30분 이상》은 텔레비전과 비디오라는 새로운 시대의 매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발견하고 엮어낸 백남준의 예술을 동시대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던 반문화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3월 기획전 《응얼거리고 일렁거리는》**은 감정과 감각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작동하여 사회 개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잉태한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감정의 흐름(정동, 精動, affect)', 그 중에서도 다수가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 경험하는 '집단 감성'에 동시대 미술이 주목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7월 첫 번째 기획전 《세 개의 방》**은 백남준아트센터,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중국), 그리고 예술과 미디어 기술센터(ZKM, 독일)가 미디어 작가를 발굴하고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는 연계 전시 프로젝트이다. 이 전시는 7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중국과 독일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7월 두 번째 기획전 《다툼소리아》**는 데이터(datum)와 감각(sensoria)의 합성어로 정보 시대의 내재적이며 새로운 개념적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본 전시는 2016년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 2017년의 독일 칼스루에의 ZKM의 전시를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선보이게 되며, 정보시대의 새로운 인지적, 윤리적, 감각적 공간을 다루는 미디어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잇는 신진 예술가를 소개하고 전시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는 '신진작가 프로젝트'가 새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모토 아래 **《미래 미술관X미래 미디어》(가제)**라는 전시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기관의 10년에 대한 평가아래 미래 미술관의 비전을 모색하고 4차 혁명시대의 미디어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월에는 2017-18 한영 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된 백남준아트센터-FACT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젝트의 결과 전시인 **《루메(자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17-18 한영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미디어 아트센터 FACT(영국, 리버풀)와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오는 30일 영국 작가 크리스 쉐(Chris Shen)의 레지던시 결과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가 개막한다. 한편,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백남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 활동으로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이해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피드백>을 운영한다.

또한, 오는 1월 29일, 백남준의 추모 12주기를 맞이하여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온라인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故 백남준 12주기를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는 백남준에 대한 퀴즈를 푸는 웹 앱으로, 주어진 문제를 모두 푼 사람은 온라인에 만들어진 '백남준을 기억하는 공간'에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으며 백남준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관람 안내

[관람요금] - 무료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7~8월 오전 10시~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II. 1월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겨울방학 프로그램 <피드백> 운영’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을 진행한다. 겨울방학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은 백남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를 통한 활동으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피드백_전시집중감상 프로그램>은 ‘피드백(feedback)’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단지 전시를 감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반응까지 그 과정으로 여긴다. 또한 정보를 주거나 필요한 사항 등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의 ‘피드(feed)’와 백남준의 ‘백(paik)’이 결합하여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사항과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참고 이미지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진, 백남준아트센터

- 진행기간 : 2018년 1월 17일 - 2018년 1월 26일, 수-금, (총 6회)
- 시 간 : 오전 11:00 - 12:30 (90분)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실, 교육실
- 대 상 : 초등학생 4-6학년 15명 (* 해당 연령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참 가 비 : 1인당 3,000원

- 접 수 : 온라인접수 www.njpartcenter.kr (백남준아트센터)
- 문 의 : edu@njpartcenter.kr / 031-201-8512
- 프로그램 내용 : 백남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 활동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일정(총 소요시간 90분)

세부일정	시간	내용	장소
도입	10분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백남준 및 전시 소개	교육실
전시감상	50분	○ 활동지를 활용한 전시 집중 감상	전시실
마무리	30분	○ 인상 깊었던 작품을 골라 나만의 해시태그 만들어보기 ○ 발표하기 및 활동 마무리	교육실

III. 2017-18 한영 교류의 해

‘백남준아트센터-FACT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결과 전시 크리스웬 《루메(자동)》전 개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지난 해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창조적 미래 (Creative Future)'를 주제로 영국의 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FACT)와 함께 한국과 영국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영국 작가 선정을 위해, 2017년 9월 작가 공모 후 10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크리스 쉐(Chris Shen, 영국)을 최종 선정하였고 작가는 2017년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결과로 오는 1월 30일부터 3월 25일까지 아트센터 1층 메자닌에서 크리스 쉐의 《루메(자동)》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오프닝과 오픈 스튜디오는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 전시개요

- 개막행사 : 2018년 1월 30일 (화) 오후 4시
- 전시기간 : 2018년 1월 30일 - 2018년 3월 25일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
- 문 의 : 031-201-8597

- 주 최 : 백남준아트센터, FACT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 본 프로그램은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가 후원하는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 작가 소개

크리스 쉐(1988, 영국)은 런던 커뮤니케이션 대학교(LCC)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런던과 홍콩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영국), 런던 뮤지엄(영국), 아이빔(미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고, 비디오타지(홍콩), 피어투아트센터(대만), 국립현대미술관 창동(한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IV. 백남준 추모 12주기

백남준 추모 12주기 온라인 이벤트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

- 일시 : 2018년 1월 29일

오는 1월 29일, 백남준의 추모 12주기를 맞이하여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에서는 온라인상에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故 백남준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온라인에 개설된 추모 공간인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는 백남준에 관한 퀴즈를 푸는 웹 앱으로써,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접속자들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 온故 백남준에 대한 퀴즈를 풀게 된다. 주어진 문제를 모두 푼 사람은 온라인에 만들어진 '백남준을 기억하는 공간'에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으며 백남준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 추모 12주기에 관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를 이용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